

# 언어치료 사례집

# 언어치료 사례집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사랑상담실을 운영한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한 부모들의 고민과 노력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상담과 치료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부모 양육상담과 아동 놀이·언어 치료를 진행해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걱정이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발달 지연이었습니다.

언어치료 신청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4%, 실행률이 전년 대비 38%가 증가하여 다른 상담 유형에 비해 영유아 언어발달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언어발달로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한 정보제공의 방법을 고민한 결과, 지난 상담사례를 통한 아이의 언어발달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치료 사례집은 자녀의 언어발달 문제로 문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언어발달 상 문제가 없더라도 영유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도 방법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부모의 어려움을 알고 사례집 발간을 제안하고 집필에 참여한 강미희, 김 정, 류복순, 배원경, 신지혜, 장보경, 정슬기 직원들과 홍유림 팀장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더불어 아이사랑상담실에서 언어치료를 진행하고 사례집에 자문을 협조해 준 이순자 치료사에 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더욱 더 고민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Contents

---

### 1. 연령별 언어발달 체크리스트

#### 2. 말하기를 힘들어하는 아이

- 01.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언어지연 소견을 받았어요 **14**
- 02. 또래와 비교해 언어표현이 없어요 **15**
- 03. 말을 안 해요 **16**
- 04. 말을 안 해요. 말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17**
- 05.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18**
- 06. 발음도 안 되고 산만하고 주의력이 부족해요 **19**
- 07. 의사소통이 안돼요 **20**
- 08. 'ㅅ'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21**
- 09. 말을 더듬어요 **22**
- 10. 선택적 함묵증인 것 같아요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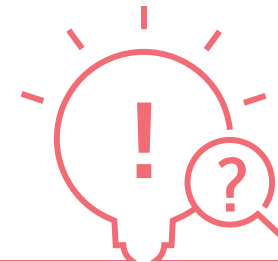
#### 3. 언어지도를 어려워하는 부모

- 01. 미디어 노출이 많아요 **26**
- 02. 고집이 너무 세요 감당이 안돼요 **27**
- 03. 울고 떼쓰는 게 감당이 안돼요 **28**
- 04.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9**

#### 4. 왜 그랬던 걸까요?

- 01.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32**
- 02. 싫다는 표현을 행동으로 해요 **33**
- 03. 혼자서만 놀아요 **34**
- 04.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해요 **35**
- 05. 행동과 말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36**
- 06. 발음이 부정확한 것 같아요 **37**
- 07. 발음이 안 좋아요 **38**
- 08. 말로 안하고 소리를 질러요 **39**
- 09. 뇌병변으로 인한 언어발달 지연 **40**
- 10.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요 **41**

#### 5. 더 궁금해요.





## 1. 연령별 언어발달 체크리스트



- **수용언어란?** 아이가 듣고 이해하는 언어
  - **표현언어란?** 아이가 말로 표현하는 언어
- ※ 4세 이전에는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발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0~12개월 연령별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 수용언어

-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 목소리, 얼굴표정, 몸짓에서 예뻐하는지, 야단치는지 의미를 파악합니다.
-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잠시 활동을 멈추고 머리를 돌립니다.
- “안돼”라는 제지적 지시에 행동을 멈추며, “아빠 어디 있니?” 물으면 아빠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립니다.
- “빠이빠이, 손뼉 쳐, 도리도리”의 의미를 이해하며 몸짓합니다.

#### 표현언어

- 여러 음절로 웅얼이를 합니다.(마바바)
- 어른의 소리를 반복하여 들려주면 비슷한 소리를 모방합니다.
- 부모에게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요구를 표시하려고 손짓이나 말소리를 사용합니다.
- 한, 두 개 단어를 뜻이 정확하게 사용합니다.(맘마, 까까, 엄마)

### 12~24개월 연령별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 수용언어

- 친숙한 사물의 명칭을 이해하고, 말하면 가지고 옵니다.
- 부정어 ‘없다’, ‘하지마’ 등의 말을 이해합니다.
- 의문사 ‘무엇’, ‘누구’를 이해합니다.
- 일상적인 동사 ‘봐, 와, 먹어, 앉아’ 등의 어휘를 이해합니다.
- 시제 ‘지금’을 이해합니다.

#### 표현언어

- 단어안에서 매우 빈번하게 자음(ㄷ, ㄴ, ㅇ 등)을 사용합니다.
- 2~3음절 단어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 친숙한 사물 5개 정도를 정확하게 말합니다.(공, 명명, 까까, 컵, 빠방)
- 오랫동안 혼자 이야기를 하면서 놀이를 하나, 대부분 알아듣기 힘듭니다.
- 사물의 이름을 끊임없이 묻습니다.(이게 뭐야?)
- 두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공 차, 빠방 타, 앉아 있어)

### 24~36개월 연령별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 수용언어

- 사물의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며(문 손잡이, 버스 바퀴) 사물의 기능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물 마시지?)
- 신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 그림책을 보며 의문사를 사용한 질문을 이해합니다.(누가 뛰어가니?, 개 어디 있니?)
- 관련된 세 가지 지시를 이해합니다.(차를 꺼내서 이리로 가지고 와서 나한테 줘)
- 부사 위치어 '안(속), 밖, 위, 아래' 등을 이해한다.

#### 표현언어

- 80%정도의 조음 명료도(청가 입장에서 말을 들었을 때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를 나타낸다.
- 자신의 경험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 과거 시제를 이용하여 말한다.(병원 갔어, 회사 갔어)
- 부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말한다.(아빠 천천히 가, 아기 크게 울어)
- 부정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말한다.(엄마 안 아파, 안 먹어)

### 3세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 수용언어

- 물건의 기능을 이해한다.
- 상대적인 의미를 이해한다. (예: 서다-가다, 위-아래, 큰-작은)
- 간단한 구어적 유추를 한다.
- 물건의 이름을 말하면 이해한다.
- 성인과 친구들을 조정하려고 한다.
- 과거와 미래를 인식한다.

#### 표현언어

- 2~3단계 지시를 수행한다.
- 단순한 질문에 대답도 하고, 단순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누가, 무엇, 어디, 왜)
- 언어로 감정을 표현한다.
- 4~5년말 문장을 사용한다.
- 6~13음절 문장을 정확하게 따라 할 수 있다.
- 6년말 문장까지 사용한다.
- 구어 속도가 증가한다.
- 자음의 50%정도를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
- 구어는 80%정도의 명료도를 보인다.
- 일어나 순서에 따라서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다.
- 미래 시제를 사용한다.
- 진행형을 사용한다.
- 접속사 '왜냐하면'을 사용한다.

### 4세 연령별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 수용언어

- 셋까지의 개념을 이해한다.
- 계속해서 공간적인 개념들을 이해해 나간다.
- 1~3개의 색을 인식한다.
- 짧고 단순한 이야기를 경청한다.
- 어중에 나오는 자음을 자주 생각한다.

#### 표현언어

- 10까지 외워서 센다.
- 기능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다.
-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들을 사용한다.
- 4~8개 낱말의 문장을 사용한다.
- 낱말의 정의에 대하여 질문한다.
- 90%정도의 자음 정확도를 나타낸다.
- 자주 나타내던 생략이나 대치와 같은 조음 오류가 많이 줄어든다.
- 아동의 구어는 낯선 사람에게도 대체로 명료하게 들린다.
- 놀이터나 친구 집에서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 긴 이야기를 정확하게 연결한다.
-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그에 대해 간단한 질문도 한다.
- 피동형의 문장을 사용한다.



5세 부터는 한 장면의 그림을 보고 유창하게 인과관계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에 관심을 보이거나 가능한 경우도 있는 등 환경에 따라 어려움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5~6세

- 여섯 가지의 기초적인 색깔과 세 가지의 기초적인 모양을 말한다.
- 집단에게 주어진 지시를 수행한다.
- 3단계 지시를 수행한다.
- 의문 부사 '어떻게'를 이용하여 질문한다.
- '안녕'과 같은 인사말에 구어로 대답한다.
- 과거 및 미래 시제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 접속사를 사용한다.
- 13,000개 정도의 표현 어휘를 습득한다.
- 반의어를 말할 수 있다.
- 요일을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
- 30까지 외워서 센다.
- 빠른 어휘의 증가를 계속해 나간다.
- 4~6개 낱말 정도로 문장의 길이를 준다.
- 때때로 음소를 바꾸어 발음한다.
- 정보를 교환하거나 질문을 한다.
- 상세한 문장을 사용한다.
-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사용한다.
- 이야기를 정확하게 엮어 나간다.
- 노래나 자장가 등을 끝까지 부른다.
- 성인 및 다른 아동과 쉽게 의사소통한다.
- 대부분 적절한 문법을 사용한다.

### 6~7세

- 약간의 철자, 숫자 그리고 돈의 단위를 명명할 수 있다.
- 순서대로 수를 센다.
- '왼쪽'과 '오른쪽'을 이해한다.
- 차츰 좀 더 복잡한 묘사를 한다.
- 20,000개 정도의 수용 어휘를 습득한다.
- 대략 6개 낱말 정도의 문장 길이를 나타낸다.
- 대부분이 시간적 개념을 이해한다.
- 철자를 외운다.(ㄱ, ㄴ, ㄷ, ㄹ ...)
- 100까지 외워서 센다.
- 대부분의 문법 표지(grammatical markers)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 수동형의 문장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본 사례는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언어 치료 사례이며,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 소담언어청각아동발달센터 ]



## 2. 말하기 힘들어하는 아이

### 01 |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언어지연 소견을 받았어요.

**Q** <5세 남아>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언어발달이 지연되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 괜찮은 건가요?

**A** 언어발달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도움을 주면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아이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가리키기, 물건 건네주기, 직접 사물을 가져오기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간혹 물건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였고, 치료사의 말을 따라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가 선택한 놀이를 함께 놀면서 아이가 선택한 놀이를 말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 올라가는 놀이를 했을 때 “계단”, “계단 올라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회기를 진행하며 언어를 말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와 치료사가 목표하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놀이를 병행하여 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방을 통해 2개나 3개의 단어가 연결된 말하기가 가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언어 자극을 부모에게 부탁하였습니다.



#### Tip!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 표현에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말하기는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대인관계에 자신감에서 시작됩니다.

말하기는 단순한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생긴 후 발음상의 문제는 추후에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02 | 또래와 비교해 언어표현이 없어요.

**Q** <4세 남아> 언어표현은 없는데 잘 자고 잘 놀아서 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또래와 비교를 하니 언어표현이 없어서 걱정이 되네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아이와 놀이하는 동안 치료사가 제시하는 놀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거나, 자신이 놀던 것을 멈추고 상대방 놀이를 함께하기 등의 놀이가 가능하였습니다. 말을 사용해서 관계를 맺는 의사소통은 어려워하였으나 치료사가 요구하는 사물을 건네거나, 지시에 의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고려했을 때, 언어 이해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이가 보이는 행동과 용말이 표현(이아, 으어, 그아 등)에 의미가 있는 단어를 붙여 아이의 놀이를 해석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놀이 시 “소방차, 사다리, 올라가, 엄마, 타, 소방차, 출발” 등 아이가 이해 할 수 있는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해주고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는 간단한 문장을 듣는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Tip!**

기질적으로 성향이 순한 아동의 경우 표현하는 언어가 적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신호를 보내기 전에 식사를 챙겨주거나, 기저귀를 바꿔주거나 하는 등 불편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불편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민하진 않지만 민감하게 반응해주도록 합니다.

## 03 | 말을 안 해요.

**Q** <3세 남아> 아이가 집에서 말을 거의 안해요. 사용하는 단어가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있고 집에서도 많이 놀아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아이와 만나며 사회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쳐다보기, 웃기, 공통된 놀이하기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처음 만나 두 단어가 연결된 문장 “이거 가”, “여기 타”를 모방하였으며, “이거”, “아니”, “먹어”, “물 마셔” 등의 단어를 자연스럽게 모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역할놀이를 통해 두 세 단어가 들어 있는 문장을 표현하였으며 스스로 말하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알게 된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자기말로 표현하지 않는 모습은 보이나 다양한 장면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Tip!**

쳐다보기, 웃기, 반응하기 등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신생아 때부터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이의 행동이나 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리액션)을 해준다면 표현력이 풍부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 04 | 말을 안 해요. 말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Q** <5세 남아> 저희가 맞벌이라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아이를 주로 봐주세요. 아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받아주셔서 아이가 말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모래놀이 및 다양한 놀잇감을 활용하여 놀이하였습니다. 아이와 놀이를 하며 관찰한 바로는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치료사가 제시하는 놀이를 하기 싫을 때 “아니”, “싫어”, “안해” 등의 사용이 가능하였고 고집을 부리거나 떼를 쓰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유창하게 말을 하거나 다양한 단어를 활용하여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준다면 꾸준히 발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Tip!**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바라만 봐도 어떤 기분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 수 있죠. 그렇다고 뭐든지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아기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응해주고,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조금 더 커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 자신의 기분을 자신의 말로 표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듣고 행동하기, 상대방이 물건을 줄 때까지 잠시 기다리거나, “안돼”라는 상황에서 멈추기 등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05 |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Q** <5세 남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아이가 받침을 생략하거나 ‘ㅅ’, ‘ㅆ’을 ‘ㅈ’, ‘ㅊ’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세 아동은 학습적인 방법으로는 발음치료를 하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발달 과정에 있는 연령임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놀이상황을 통하여 정확한 발음으로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따라 말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2~3번 따라 말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렵다는 느낌과 실패했다는 감정을 갖게 할 위험이 큼니다. 아이가 선택한 놀이에 30초 정도의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소방차를 출발시키는 행동을 보일 경우 “소방차 불 꺼요.”, “불 끄는 소방차”라고 말을 해주도록 합니다.



**Tip!**

아이는 언어능력이 발달하면서 발음도 발달하게 됩니다. 웅얼이, 단어 말하기, 문장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아이는 성인의 말소리처럼 모든 자음과 모음의 소리가 확립됩니다. 5세가 되면 한글의 모든 소리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게 되는데, 말이 늦은 아동의 경우 충분한 웅얼이, 말하기 등의 과정을 지나야 정확한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 06 | 발음도 안 되고 산만하고 주의력이 부족해요.

**Q** <5세 남아> 발음이 부정확하고 산만하고 주의력이 부족해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사과”를 “따과”로, “자동차”를 “다동타”로 발음하며 발달상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오류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소, 시계” 등의 “ㅅ”과 “ㅣ”이 만나는 단어는 정확히 구사하였습니다.

다만, “ㅈ”을 발음하기 위한 정확한 혀의 위치는 어려웠습니다. 혀차기는 가능하나 유연성이 부족하였고 혀를 입천장에 위치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함께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 늦어진 것을 고려할 때 아동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것은 개인 내 능력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 정확한 발음에 대한 발달이 보이지 않을 경우 언어치료를 권합니다.

## 07 | 의사소통이 안돼요.

**Q** <7세 여아> 부정확한 발음으로 의사소통이 안돼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ㅅ’, ‘ㅆ’, ‘ㅈ’, ‘ㅊ’을 ‘ㄷ’, ‘ㄷ’, ‘ㅌ’로 발음하였고, ‘ㄱ’, ‘ㅇ’은 발음이 생략되었습니다. 생략된 발음을 따라하도록 하였을 때 정확한 발음을 어려워하였으나 비슷한 발음으로 나타났고 치료 시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 말하기 또는 치료사가 한 번 이야기해준 상황에서 기억했다 말하기에서는 아동의 발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놀이상황에서는 발음이 부정확하였습니다. 치료를 진행하며 ‘ㅈ’, ‘ㅊ’, ‘ㅌ’이 정확히 표현되었으며, 읽기가 가능하였으므로 읽기를 통해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Tip!**

혀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혀 끝을 양쪽 입술 끝에 대기’, ‘시계소리 똑똑똑딱하기’와 같이 혀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혀를 많이 움직이는 경험을 통해서 발음이 부드러워 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의 활동을 놀이처럼 해주면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Tip!**

내향적인 성향의 아이인 경우 정확히 말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ㅅ’, ‘ㅆ’의 발음을 정확히 하는 방법으로 “사자”를 “스아즈아, 스아자”처럼 천천히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됩니다.

## 08 | 'ㅅ'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Q** <6세 여아> 'ㅅ'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엄마인 제가 너무 거슬려요. 이대로 굳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놀리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돼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치료사의 판단으로는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지 않은 미미한 정도입니다. 아이가 '빠른 말하기 속도', '말끝 흐리기' 등의 모습이 보였으나 다시 말해볼 수 있도록 했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니다.  
'ㅅ', 'ㅆ'이 포함된 어휘 10개 목록을 단어수준으로 말하기, 목표 어휘를 넣어 문장 만들기(따라 말하기, 재구성하기)를 통해 발음을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Tip!**

발음의 완성은 "숫사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어른들도 완벽히 구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른들도 노력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응원해주세요. 언어 발달은 음성의 문제가 아닌 자신감으로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09 | 말을 더듬어요.

**Q** <7세 여아> 말을 더듬어요. 말을 할 때 숨을 크게 쉬거나 끊어져서 말을 해요. 자기도 답답한지 발을 구르거나 손뼉을 치며 과격하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린다고 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아이가 말을 할 때 다른 부수적인 행동을 보이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말하는 행동에 스트레스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거부하는 반응들을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에게 긴장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 표현하려고 하지만 언어 연결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치료사가 기다려주자 시작된 말을 끝까지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드러내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자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함께 지도해줍니다.



**Tip!**

아이가 말을 더듬으면 부모는 으레 겁을 먹게 됩니다.  
아이가 밖에서 말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욱 의식 하게 됩니다.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 다시 해보라고 짚어 주지 않고, 칭찬을 통해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세요. 잠시 걱정은 내려놓고 말을 하려고 하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기다려주세요. 부모가 여유있는 태도를 보일 때 말을 듣는 아이도 편안함을 느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단다. 천천히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렴.'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기다린다면 아이는 자신 안에 있는 단어를 조합해 멋진 말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 10 선택적 함묵증인 것 같아요.

**Q** <4세 남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않아요. 특히 외부에서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어디 아픈 아이인지 물어보는 등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선택적 함묵증일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사회적 미소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언어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치료사가 이것저것 물어보며 놀이하는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쳐다보거나,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 수단으로 반응하였고 역할놀이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단어를 이용해 말을 하였고, 동물농장 꾸미기 활동을 하며 의성어와 의태어를 모방하고 2~3 어절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상담을 통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인사해야지”, “말로 해야지” 등의 요구가 있음을 확인하여 양육자가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동이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Tip!

선택적 함묵증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원인일수도 있고 양육환경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낯선 환경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과잉보호로 말을 하지 않아도 요구사항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다려주는 연습과 함께 아이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낯선 환경을 탐색하고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유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memo



+



### 3. 언어지도를 어려워하는 부모

## 01 미디어 노출이 많아요.

**Q** <4세 남아> 순하고 혼자 잘 놀아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못 했어요. 미디어 노출이 좀 많은 편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치료사와 의사소통을 하려는 태도는 볼 수 있었으나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로 소통하기 보다는 다른 소통방법을 사용하는 듯 하였습니다.

점점 치료사의 말을 모방해서 따라하거나 대답이 가능해졌고 미소를 짓거나 물건 주고 받기, 원하는 물건을 요구하기 등의 모습이 나타났으며, 먹여주기, 의자 앉히기, 침대 눕히기 등의 사회적 역할놀이를 통한 놀이구성이 가능했습니다. 치료사가 아이가 구성하는 놀이를 지지해주고 언어로 표현해 주었을 때 2~3어절의 모방이 있었고 가정과의 연계로 3어절 이상의 언어를 스스로 표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Tip!

- 아이에게 놀이의 즐거움이나 책을 보는 즐거움을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디어 노출보다는 질 좋은 놀이 한번!!! 언어표현의 효과를 빠르게 경험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놀이하는 방법으로는
- ① 아이가 구성하는 역할놀이를 함께 합니다. 이때 섬세한 관찰이 필요해요. (예: 소꿉놀이 놀잇감을 만진다)
  - ② 아이가 구성하는 놀이를 명명해줍니다. (예: 아이가 말없이 음식을 썰거나 요리를 한다. “○○이가 요리를 하는 거야?”)
  - ③ 아이가 이끄는 대로 놀이를 진행합니다. (예: 먹어보라며 음식을 권한다. “엄마 먹어봐? 그럼 엄마가 손님을 하면 될까?”)
  - ④ 놀이에 필요한 단어나 문장을 짧게 이야기합니다. (예: “사장님~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 ⑤ 주고 받을 수 있는 단어를 조합해본다. (예: “잘 먹었습니다. 얼마예요?”/ “안녕히 계세요”, “손님 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해야지”)

## 02 | 고집이 너무 세요.

**Q** <5세 남아> 말을 하면 이해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통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일부러 안 하는 건지, 고집이 세서 어린이집에서 통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아이의 고집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양육자의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 마다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면 아이가 고집을 부리면 자신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고집을 세워가며 때를 쓰게 됩니다. 아이들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했을 때 주의를 끈다면 이미 자신의 마음을 허용해주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관심끌기 행동화) 여기에서 “안돼”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이가 고집을 부려 결국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는 떼쓰거나 우는 것을 그만 둘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일관적인 반응을 통하여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고 신뢰가 쌓였을 때 건강한 발달과정으로 향상되며 언어발달 또한 촉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Tip!

#### 일관적으로 아이 대하기 :

아무리 떼를 써도 부모를 납득 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이도 더 이상 떼를 쓰지 않고 다른 의사표현 방법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해선 안 되는 일 이라면 아무리 떼를 써도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 주세요. 아무리 울며 떼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점차 떼쓰는 행동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부당했을 경우 울거나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못해서 속상해? 이거 정리하고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시선을 맞추고 바른 태도를 보일 때 바로 반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 번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안 돼”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안 되어야 합니다. “안 돼”는 신중히!! 그러나 안 된다는 의사 표현을 무섭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서움보다는 양육자의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스스로 선택했던 결정이 힘든 것임을 깨닫게 되면 엄마 아빠의 의견을 더욱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 03 | 울고 떼쓰는 게 감당이 안돼요.

**Q** <4세 남아> 말을 하지 않고 아이의 돌발적인 울고 떼쓰기의 강도가 커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양육이 너무 힘들어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상담한 바로는 아이의 다양한 자극을 위해 문화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으나 주 양육자의 혼자서 감당하는 육아에 대한 슬럼프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치료사와 함께 소꿉놀이, 클레이활동, 끼적이기, 공놀이하는 것을 더욱 좋아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통제했던 부분을 기억하고 있기에 처음부터 자신의 놀이를 받아 주고 지지하는 치료사가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엄마와 아이의 애착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엄마와의 애착형성을 위해 치료사와 엄마가 공놀이를 하였고 이후 엄마가 굴러 주는 공을 아이가 받을 수 있도록 놀이하며 엄마와의 공동놀이를 점점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여기”, “어”, “아니”, “이어” 등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단어를 말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아빠의 육아참여와 꾸준한 애착형성의 노력이 필요 합니다.



### Tip!

고집은 자아개념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문장을 사용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3~4세 아이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이수준에 맞는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아직 감정표현이 미숙하기 때문에 아이 상태를 살펴서 고집을 부리는 숨은 동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는 감정에 대한 이유를 묻기보다는 감정 그대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04 :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Q** <5세 남아> 언어발달이 느리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서 너무 힘이 듭니다. 또 어디를 가면 꼭 제 옆에만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치료실에서의 분리가 힘들어 엄마와 함께 입실을 했고 건강한 애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때리거나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며 엄마에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아이의 그런 행동에 어머니는 강한 어조로 아동을 잡고 훈계하였지만 아이가 계속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자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반복은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을 더욱 강화하는 훈육방법이었습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고집을 고치려고 한다면 부모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 수용이 가능한 범위라면 처음부터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문제행동을 포기했을 때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서 위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기한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2~3어절의 말하기를 시작하였고 떼쓰는 행동의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Tip!**

아이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 나름대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찾아보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타협을 통해 부모의 가치관을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 [ 타협방법 ]

아이의 요구와 부모의 판단을 적절히 중재해야 아이도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타협을 할 때는 아이에게 적당한 기준과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memo



## 4. 왜 그랬던 걸까요?

### 01 |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들겠어요.

**Q** <7세 여아>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고 걸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발음이 부정확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아동의 언어평가 결과 언어발달지연이 나타났으며 또래 범주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치료 시 그림과 관련된 의미있는 문장 만들기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말소리를 알아듣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순서를 설명하는 장면, 예를 들어, 목욕하는 순서 말하기, 생일파티하는 순서 말하기는 어려워하였습니다. 동사, 의문사 이해하기 등의 접근을 통한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합니다.



#### Tip!

언어발달을 비롯한 모든 발달 과정에 있어 가장 기본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입니다. 아이와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성 발달도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 [ 사회성 발달을 돕는 방법 ]

- ✔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 반복해서 읽어주기
- ✔ 이야기 꾸며 말하기
- ✔ 실제 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아이와 대화 나누기
- ✔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상황 제공하기

## 02 | 싫다는 표현을 행동으로 해요.

**Q** <4세 남아>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기질의 아이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제 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요구를 표현하고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상담을 진행한 3회기부터 보호자와 분리되어 상담실입실이 가능하였지만 던지고 뿌리치는 행동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상대방이나 소리에 무관심하여 상대방과 함께 놀이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려는 행동은 모든 영유아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행동입니다. 영유아는 자신 스스로 만드는 방어기제보다 주변에서 아이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놀고 싶은 놀잇감 달라고 하기, 상대방이 요구하는 물건 건네기, 자연스러운 인사 등을 말로 할 수 있도록 아이가 거부 행동을 할 때 '싫어', '하지마', '아니', '안돼' 등을 치료사가 옆에서 언어로 표현하였고 요구하는 행동을 할 땐 '같이 해', '~할 거야' 등의 언어로 표현해주었습니다.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놀이, 아이가 주도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아이의 놀이를 언어로 표현해주어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Tip!**

자폐스펙트럼은 의학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언어, 인지, 감각, 특히 사회성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내는 발달상의 이상이 진단되며 자기표현이 서툰 아이의 경우 발달이 늦되어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가 생각의 전환과 자기표현이 어려운 경우라 한다면 발달상의 문제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 03 | 혼자서만 놀아요.

**Q** <6세 여아> 아이가 제가 말을 할 때 눈을 바라보지 않고 혼자서는 잘 노는데 또래와 어울려 놀지 못해요. 집단생활 하는데 아이가 동떨어져 지낼까봐 걱정입니다.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아이가 혼자서 놀이를 할 땐 다양한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상담사가 질문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또래, 부모님과 함께 대화나 놀이를 할 때는 억양, 말의 강세, 리듬(운율) 등을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답을 할 때도 상대방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말하는 모습과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등 안내방송 같은 느낌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그룹활동, 단체활동을 통해 아이가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고 질서를 지키기, 발표할 때 손들기, 모두 자리에 앉을 때 따라서 자리에 앉기 등의 행동을 하며 분위기를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가 또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Tip!**

아이가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데에는 기질상의 문제나 발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위의 경우처럼 지속적인 그룹활동, 단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키즈카페, 놀이터 등에서의 만남을 통해 또래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사회성과 사회적 규칙을 익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04 | 노래와 잘 어울리지 못해요.

**Q** <5세 여아> 자폐스펙트럼 범주에 속하며 타 기관에서 자폐증 행동수정치료 (ABA)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 이름을 불렀을 땐 대답을 하는데 그 외에 제 말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 언어가 잘 발달되고 있는 건가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치료실에서 아이가 선택한 놀잇감을 사용하여 혼자 놀이하였습니다.  
 치료사가 가까이 다가가자 자신이 놀던 것을 지키려고 하며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치료사가 함께 놀이하려고 해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놀고 있는 놀이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의 행동, 움직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치료사가 요구하는 말을 할 땐 무반응이었고, 치료사와 마주앉아 '○○아, 네'라고 하면 아이도 '네'하고 즉시 반응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ABA치료 시 보이는 양상입니다. 치료사가 아이가 선택한 놀잇감에 관심을 보이며 아이가 토끼인형을 침대에 눕혔을 땐 '토끼 누웠네, 토끼 잘 자'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놀이를 방해하며 요구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토끼인형을 침대에 눕혔을 때 '토끼가 자기 싫대'하며 토끼를 의자에 앉혔을 때 '하지마', '토끼 쥐'하며 요구반응을 끌어내기 위했습니다.  
 이러한 아이의 반응이 놀이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Tip!**

자폐스펙트럼의 경우 소리, 빛, 접촉, 감촉, 맛, 냄새, 통증, 온도 및 그 밖의 외부 자극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둔감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치료 병행과 함께 가정에서는 아이가 언어표현 외에 비언어적 요구반응과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주시고 아이가 흥미를 보이거나 주도적으로 놀이할 때 다양한 반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놀이행동을 반복하여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05 | 행동과 말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Q** <4세 남아>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곧 5살이 되는데 말을 하지 않아 노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부모로서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상대방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관심이 없으며 놀잇감과 사물을 빨고, 만지기 등을 통해 탐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들어 귀에 가져간단던가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등의 놀잇감과 물건의 기능 탐색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치료사가 알려주는 활동을 할때도 굴려준 공 잡기, 자동차 잡기, 자르기, 바구니에 물건 담기 등에 무관심으로 일관했으며 짜증내기, 소리지르기, 거부하기 등의 반응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모든 상황에서 아이는 반응하지 않는 행동만 관찰되었습니다. 치료사와 함께 '2조각 색종이 자르기, 붙이기'와 '담기' 활동과 함께 치료사가 '잘라' '붙여' '담아' 등의 언어 표현을 자극하도록 잘라진 조각을 하나씩 건네고 붙이는 활동을 반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반복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자극을 주면 좋겠습니다.



**Tip!**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셨는데 원인과 결과가 궁금합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특수학급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반응성 애착 장애의 경우에도 5세 이전의 과한 보살핌이나 무관심의 속에서 아이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방치 또는 과잉보호하여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지 못하여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와의 지속적인 치료와 부모님의 일관된 양육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반응하여 아이의 언어자극에 도움을 주면 좋을 듯 합니다.

## 06 | 발음이 부정확한 것 같아요.

**Q** <7세 남아> 발음이 부정확해서 엄마인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아동은 전반적인 발음이 부정확하였습니다. 언어 평가 결과 단순한 발음의 문제가 아닌 어휘력, 전반적 언어능력이 지연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혀 운동, 혀의 유연성과 정확한 발음을 위해 혀가 위치해야 하는 자리를 가정연계 하였으나 수정이 어려웠습니다. 아동은 음의 높이, 강도, 운율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어려웠습니다. 퍼즐 맞추기 및 사고력 기능에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발음의 정확도 지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언어발달 및 인지 발달영역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Tip!**

6~7세 때 정확한 발음이 어렵다고 의뢰되는 경우 간혹 단순 발음이상 보다는 인지적 결함에 의해 발음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한 요인은 인지적 사고(지능)결함에 있기 때문에 언어 이해 및 인지치료를 병행한 지속적인 치료과정이 필요합니다.

## 07 | 발음이 안 좋아요.

**Q** <5세 남아>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아동은 말을 소리로 표현하지 않아서 발음을 평가 할 수 없었습니다. 초기 상담 시 언어표현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말을 하려고 하지만 막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야, 아이이” 등의 표현을 하였고 혀의 위치를 모방하지 못했으며, 언어이해력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시각적 자극에는 반응하지만 청각적 자극에 대한 이해는 관찰한 바로는 표현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새로 접하는 자극에 대한 주의가 집중되지 않았으며, 집중되지 않았던만큼 자신만의 언어로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아동의 언어이해력 및 인지적 사고를 확인하며 치료가 진행되었고 사물의 기능, 2가지 지시 따르기, ~하는 사람(행위자 이해하기)등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Tip!**

발음과 청각적 자극이 어려운 아이의 경우 병원의 전문의를 찾아 구강구조의 문제는 없는지 청각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의견이 필요합니다.

언어치료를 꾸준히 전문상담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으며 가정에서도 오감발달을 통한 특히 청각자극에 도움이 되는 놀이를 통한 지원이 자주 반복적으로 지원 하며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부모님의 급한 마음을 다스리며 자녀를 기다려주며 적절한 놀이를 통한 자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도록, 상황을 문장으로 일상 생활에서 아주 천천히 이야기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08 | 말로 안하고 소리를 질러요.

**Q** <4세 남아> 계속 알려주는데도 말을 안 해요. 시켜도 대꾸도 없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부려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아동은 음성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원하는 행동이 수용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하는 놀이를 진행할 수 없었고 탐색하는 수준의 놀이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동이 자동차를 선택하여 “빵빵”이라고 이야기 해주었으며 다양한 탈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자동차, 비행기 등을 하나씩 만졌지만 일회성에 그쳤습니다. “타, 내려”의 반복적인 이야기에 “아, 아어”로 모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소꿉놀이에서 “담아, 구워, 먹어, 남남”의 모방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발달이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Tip!**

돌 무렵에는 ‘까꿍놀이’, 18개월 즈음에는 간단한 지시를 알아듣고 24개월에 말을 못한다면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언어발달에 문제에는 뇌에 문제가 없는지 신체(구강구조, 청각)에 문제가 없는지 병원전문의의 검사와 의견을 받아보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 [ 아이의 언어발달을 도와주는 생활법 ]

- ✔ 말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버리기
- ✔ 아이가 원하는 것에 주목하기
- ✔ 아이가 하는 말에 반응하기
- ✔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하기
- ✔ 몸짓과 표정을 풍부하게 보여 주기

## 09 | 뇌병변으로 인한 언어발달 지연

**Q** <4세 남아> 뇌병변으로 인해 외부 교육적 자극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래에 비해 언어발달이 더딘 것 같습니다.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아동은 4어절 수준의 문장을 표현하였습니다. 구강의 힘이 미숙하여 상대방이 알아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직접치료와 간접치료를 3:7의 비율로 진행하였습니다. 놀이 상황에서 3개의 장면 따라 말하기, 재구성하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아동의 기저요인을 고려했을 때 꾸준한 치료를 할 경우 발음과 언어의 이해가 나아질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치료를 권합니다.



**Tip!**

출산 때부터 선천적으로 뇌와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있게 되거나 또는 출산 과정에서의 문제, 외부적인 사고로 인해서 뇌 병변으로 인해 언어발달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뇌질환을 위한 치료에 부수적으로 언어치료를 함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상담치료사와 꾸준한 치료를 권유받으신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꾸준한 교육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부모님의 여유 있는 마음과 부모님의 육아고충을 이해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만큼 발달이 있을 수 있으니 자녀가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요.

**Q** <5세 여아>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요. 구개열 수술을 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A** 본 센터 언어치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구개파열 수술을 하였으며, 표현하는 어휘가 없어서 발음지도를 바로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물의 이해, 쿠잉과 옹알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방놀이, 클레이 활동을 좋아하여 그 활동 시 “빵, 담아, 먹어, 우유, 포도” 등을 반복적으로 말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클레이를 냄비에 담으려 “담다”, “여기”등을 말해 보게 하자 가끔이지만 모방이 나타났습니다. 아동이 좋아하는 “딸기”는 여러 번 이야기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동은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말하기를 하였으나 얼굴을 마주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은 나타나지 않고 무조건 빼앗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양하게 소리를 내고 발음을 확인한 후 2차 수술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며 꾸준한 치료를 권합니다.



**Tip!**

구강구조의 문제로 구개열 수술을 진행하였으니 병원치료와 병행하여 부모님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개열 수술을 하셨다면 전문 언어치료사와 함께 언어발달을 위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부모님께서 언어 모델링을 해주셔서 반복적 연습과 눈 맞춤과 함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 문장, 이야기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님의 기다려주기와 여유로움으로 자녀를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emo





## 5. 더 궁금해요.

###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및 아동치료 안내

#### 아이사랑놀이터 내방상담 신청 안내



부모 상담	육아에 대한 궁금증 및 어려움을 전문가와 연계하여 상담 제공
	→ 1시간씩 2회기
아동 치료	발달에 어려움을 갖는 영유아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지원
	→ 40분씩 총 5회기(초기상담 후 매칭)
	→ 놀이·미술 치료(36개월 이상~취학 전) → 언어치료(24개월 이상~취학 전)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www.ilovechild.co.kr](http://www.ilovechild.c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아이사랑상담실 → 내방상담 신청서 작성 → 대기 순서대로 유선 연락

#### 온라인 상담 신청안내



부모 육아 상담	육아에 대한 궁금증 및 어려움을 전문가와 연계하여 상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발달 및 문제행동</li> <li>▶ 양육방법</li> <li>▶ 어린이집 관련</li> <li>▶ 가족관계 어려움</li> <li>▶ 심리 관련</li> </ul>



경기도늘품순 홈페이지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 ①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gyeongginorth.childcare.go.kr](http://www.gyeongginorth.childcare.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가정양육지원 → 부모상담실
- ②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www.ilovechild.co.kr](http://www.ilovechild.c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아이사랑상담실 → 온라인상담실

### 경기도북부지역 언어치료 진행 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

연번	센터명	전화번호	비고
1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031-876-5767	
2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853-5006	
3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528-4463	
4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031-8078-8100	

### 바우처안내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비고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월20만원	2만원	
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65%이하(나형)	월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월16만원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마형)	월14만원	8만원	

#### 신청방법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읍 면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 영유아(만 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 자료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기획 및 총괄

**정혜원**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전혜자**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인성지원팀장)

**홍유림**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팀장)

#### 사례관리 및 자문

**이순자**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언어치료사)

## 언어치료 사례집

**인쇄** 2021년 12월

**발행** 2021년 12월

**발행인** 정혜원

**발행처**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3층  
☎ 031-876-5767

**인쇄처** 하늘디자인

※ 본 사례집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